

첨부 - 동향

[한국블록체인협회 - 2021년 6월]

「디지털자산」 동향 보고서

2021. 7. 9.

목 차

1. 국내 · 외 디지털자산 규모 1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5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10
4.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디지털자산 동향 ..18

본 보고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時事報道)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참고용' 자료임을 밝힙니다.

1 국내 · 외 디지털자산 규모

□ 2021년 5월 가상자산 거래 규모 2000조원 돌파

-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물 거래 규모는 5월 2일 기준 2조 7,000억달러(약 2,500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함 (2021. 6. 2.)

* 출처 : 혼돈의 5월...가상자산 거래규모 첫 2000兆 돌파 (헤럴드경제 서경원 6/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02000155>

□ 올해 가상화폐 신규 가입자 63%가 2030

- 국회 정무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249만 5,289명 가운데 20대 · 30대가 각각 81만 6,039명(32.7%)와 76만 8,775명(30.8%)을 차지함 (2021. 6. 1.)

* 출처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 · 코인뿐” (이투데이 문수빈 강태우 박민규 7/1), <https://www.etoday.co.kr/news/view/2040610>

- ▶ 같은 기간 가입자 예치금은 30대가 1,91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0대의 거래 규모 증가율은 최근 3개월 동안 284.3% 증가함
- ▶ 전체 신규 가입자 중 20·3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 40대 47만5649명(19.1%) △ 50대 21만9665명(8.8%) 등

□ 한국인 지난해 비트코인으로 거둔 수익 4억 달러

- 블록체인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흐름과 자산의 인출 시점, 웹 트래픽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인들이 비트코인 투자로 약 4억 달러(약4,46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함 (2021. 6. 9.)

* 출처 : “한국인 지난해 비트코인으로 4억달러 벌었다” (서울경제 김연하 6/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21338?sid=104>

-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국가는 41억 달러의 미국이고, 2~4위는 중국 (11억 달러)과 일본(9억 달러), 영국(8억 달러)이 차지함
- 5~7위에는 각각 6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가, 8위는 6억 달러를 벌어들인 스페인이 이름을 올림
- 한국은 4억 달러의 수익을 거둬 9위를 차지했으며, 이밖에 네덜란드와 캐나다, 베트남 등도 각각 4억 달러를, 터키와 이탈리아, 브라질, 체코 등은 각각 2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됨

□ 올 1분기 가상자산 거래 은행 입출금액 64조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이 6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됨. 지난 한 해 동안 거래 규모가 37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올 1분기에만 1.7배 증가한 수치 (2021. 6. 1.)

* 출처 : 은행, 1분기 '암호화폐 거래' 입출금액 64조...1.7배 ↑ (뉴시스 박은비 6/1),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1_0001460123&clD=10401&plD=10400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연결된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받은 분기별 수수료>

(단위 : 백만원)

| 은행명 | 수수료 명목 | 수수료 지불 주체 | 분기별 수취 금액 | | | | | | | | |
|-----------|-------------------|-----------------|-----------|-----|-----|-----|------|-----|-----|-----|-------|
| | | | '19년 | | | | '20년 | | | | '21년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케이 뱅크* | 펌뱅크 이용 수수료 | 업비트 | - | - | - | - | - | 7 | 363 | 562 | 5,041 |
| 신한 은행 |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 코빗 | 28 | 43 | 3 | 5 | 5 | 9 | 6 | 9 | 52 |
| | 펌뱅크 이용 수수료 | 코빗 | 55 | 86 | 14 | 13 | 11 | 17 | 16 | 19 | 93 |
| 농협 은행 |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 빗썸 | 314 | 440 | 457 | 293 | 347 | 452 | 521 | 514 | 1,300 |
| |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 코인원 | 41 | 98 | 124 | 66 | 67 | 86 | 135 | 142 | 333 |

* '20년 6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19년~'21년 1분기 중 수수료 미발생

※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자료 김병욱 의원실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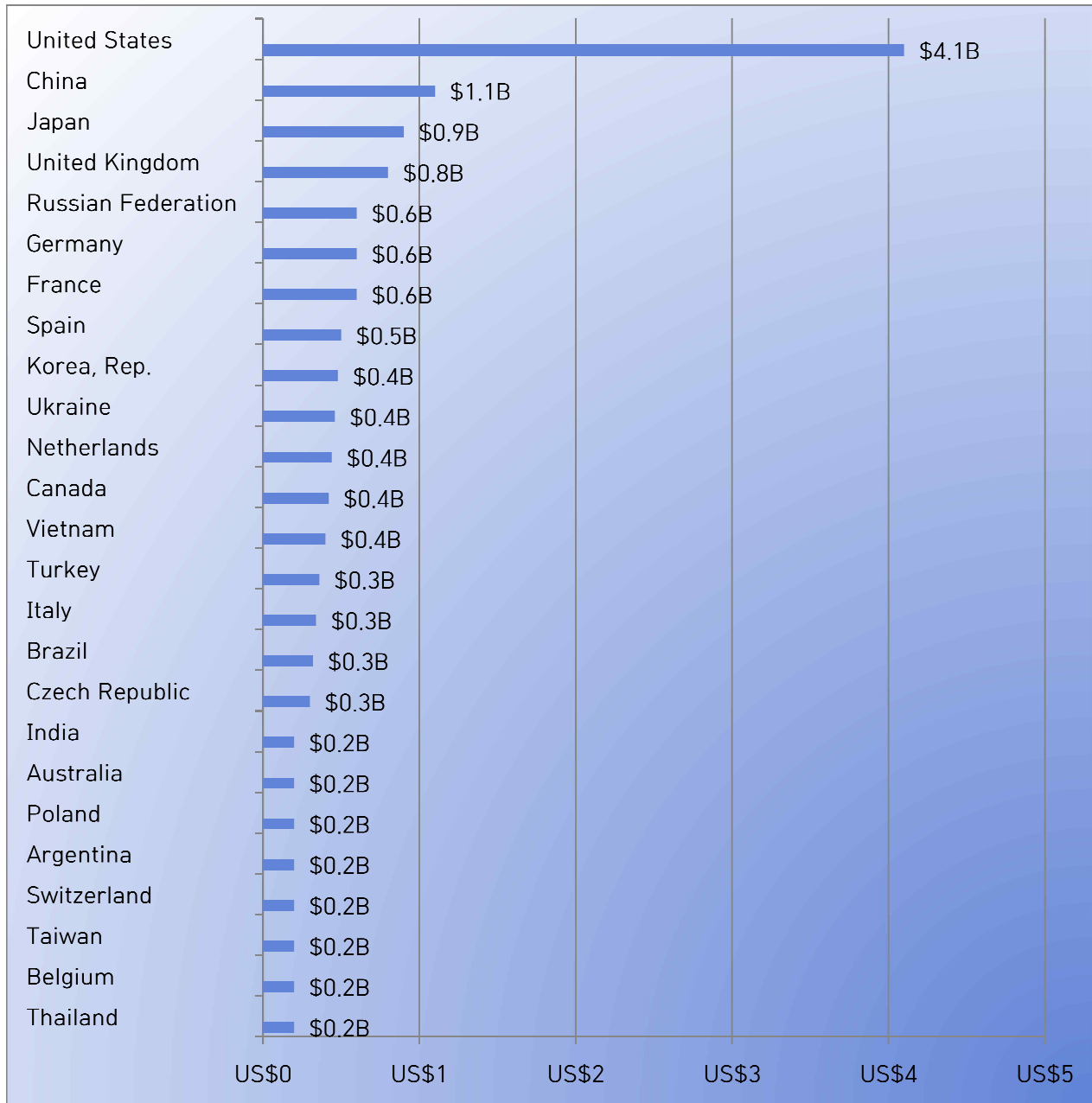
- ▶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 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수준

□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수익 평가에서 신흥국 높은 수익 거둬

-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가상자산 시장 분석 보고서(Bitcoin Gains by Country: Who Benefited the Most from the 2020 Boom?)를 통해 지난해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신흥국가들이 지난해 전 세계 비트코인 수익 평가에서 기존 경제지표 순위를 능가하는 국가들의 등장이 두드러졌으며, 신흥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평가함 (2021. 6. 16.)

* 출처 : 가상자산은 신흥국에 ‘기회의 땅’... 베트남·터키·체코 투자자 비트코인 대박 (파이낸셜뉴스 김소라 6/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58422?sid=101>

- ▶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과 터키, 체코 등 신흥국들이 비트코인 투자 수익 부문에서 약진, GDP 순위보다 높은 순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남. GDP 2,510억 달러(약 280조)로 세계 52위인 체코가 비트코인 투자이익 실현액 2억 8,100만달러(약 3141억)로 세계 18위를 기록했고, GDP 7,610억달러(약 850조원)로 세계 25위인 터키는 비트코인 투자이익 실현액 3억달러(약 3,354억원)로 16위에 오름
- ▶ 보고서는 기존에 고이율 투자자산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신흥국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확보하게 됐으며, 특히 GDP 53위인 베트남은 일반 국민들의 가상자산 채택율이 높아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이익 13위를 차지하는 등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 벨기에 등 전통 경제지표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을 앞질렀다고 분석
- ▶ 반면 GDP 2조 9억 달러(약 3,242조)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는 지난해 비트코인 투자수익은 18위에 그침. 보고서는 GDP가 높은 인도에서 비트코인 투자수익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인도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역사적으로 불친절했던 결과라고 평가함



Billions of USD

※ 2020 Estimated Realized Bitcoin Gains by Country: Top 25

※ 출처 : Chainalysis, Bitcoin Gains by Country: Who Benefited the Most from the 2020 Boom? 재가공, <https://blog.chainalysis.com/reports/bitcoin-gains-by-country-2020>

▶ 보고서는 GDP가 높은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가 자국민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 국 외

○ G7 공동성명

- G7 재무부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영국 런던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6월 5일(현지시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2021. 6. 7.)

* 출처 : G7 “스테이블코인, 반대”...CBDC 공통 기준 올해 말 발표 (블록미디어 강주현 6/7),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80853>

- ▶ G7은 “CBDC의 통화 및 금융 안정성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회, 문제점에 대해서도 탐구해왔으며 각국 재무부 중앙은행으로써 각자의 업무 범위 속에서 더 넓은 공공 정책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력할 것” 이라고 밝힘
- ▶ 또한 “CBDC는 탄력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어야 하며, 혁신, 경쟁 등을 포함해 지원하고 국경을 초월한 결제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하고, 사생활 노출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함
- ▶ G7 재무부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올해 말까지 공통적인 기준 및 결론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

- 러시아 중앙은행의 엘비라 나비올리나 총재가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빠르고 값싼 결제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CBDC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계획 관련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다고 말함 (2021. 6. 2.)

* 출처 : 러 중앙은행 총재 “디지털 화폐, 빠르고 값싼 결제... 금융의 미래” (쿠키뉴스 심신진 6/2),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6020233>

- ▶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루블화에 대한 보고서를 냈으며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시제품 준비를 제시한 바 있음

○ 미국

-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핀테크 태스크포스는 ‘팬데믹 시기의 포괄적 금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선하기 위한 연준계좌(FedAccounts) 및 디지털 도구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진행함 (2021. 6. 12.)

* 출처 : 美 하원 청문회, 금융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디지털 달러’ 논의 (토큰포스트 하이레 6/12), <https://www.tokenpost.kr/article-36258>

- ▶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부양 차원에서 성인 1인당 1,200달러(약 145만원), 아동 1인당 500달러(약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원금 전달 과정에서 통화·결제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미국 금융 인프라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 이번 청문회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모건 릭스 밴더빌트 법대 교수 등이 증인으로 참석함
- ▶ 미국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약 3,500만 명이 지원금을 은행 계좌로 직접 받지 않고 종이 수표를 받았는데 지원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종이 수표를 입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함
- ▶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前 CFTC 위원장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오래된 다리와 같으며,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혁신 흐름은 오래된 금융 시스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 ▶ 또한 그는 디지털 달러를 통해 공공 부문이 핀테크 흐름과 금융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은행 계좌보다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더 많은 현재 상황에서 디지털 달러가 금융 포괄성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중국

- 뉴시스에 따르면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30일부터 지하철을 탈 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이른바 ‘디지털 위안화(E-CNY)’ 결제가 가능해짐 (2021. 6. 30.)

* 출처 : 베이징 지하철서 오늘부터 디지털 위안화 결제 가능 (뉴시스 문예성 6/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580457?sid=104>

- ▶ 중국 신원왕 등은 공상은행에서 디지털 위안화 거래를 등록한 고객은 베이징에서 지하철을 탑승할 때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전했으며, 베이징 지하철 승차 결제 앱인 ‘이통싱’에서 디지털 위안화 서비스를 개통하면 이후 지하철 운임 결제가 가능

○ 유럽중앙은행(ECB)

- 이데일리에 따르면 6월 20일(현지시간) 파비오 파네타 유럽중앙은행(ECB) 이사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ECB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회의에서 디지털 유로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약 5년 후면 디지털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2021. 6. 20.)

* 출처 : ECB “5년 후면 디지털 유로화 사용할 준비 마칠 것” (이데일리 최정희 6/20),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74726629083688&mediaCodeNo=257&OutLnkChk=Y>

- ▶ 파네타 이사는 유럽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한정된 금액 내에서 디지털 유로화가 제공돼야 하며, 주요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가 상호 운용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설명
- ▶ 또한 그는 ECB는 연말까지 민간 디지털 통화 및 암호자산 공급자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도 만들 계획이며, 디지털 유로화 도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높이고 유로존의 통화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경쟁 암호화폐의 위협으로부터 유로존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o 국제결제은행(BIS)

- 국제결제은행(BIS)이 16일 덴마크 국립은행,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노지스 뱅크(노르웨이 중앙은행), 스웨덴 중앙은행 등과 지역 허브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힘 (2021. 6. 17.)

* 출처 : BIS, CBDC 연구 위한 북유럽 허브 개설 (코인데스크코리아 Tanzeel Akhtar 6/17),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49>)

- ▶ BIS 혁신 허브는 셉테크(Supervision+Technology, 감독 기술)와 레그테크(Regulation+Technology, 규제 기술), 금융 시장 인프라, CBDC, 개방형 금융, 사이버 보안, 녹색 금융 등 여섯 개 영역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임
- ▶ 최근 BIS는 50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CBDC를 활용한 국경 간 거래의 잠재 수요를 조사했으며, 조사 대상 중앙은행의 약 3분의 2가 이미 CBDC를 활용한 실험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o 스페인

-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6월 8일 스페인 사회당의 대리인단은 디지털 유로화의 발행을 가속화 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 법적인 제안을 제출함. 이 제안은 통화의 실행 이점을 검토할 연구 그룹을 설립할 것을 요청하고, 스페인 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연구 그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21. 6. 20.)

* 출처 : 스페인 사회당 '디지털 유로' 구현 가속화 연구 워킹그룹 신설 중앙 정부에 제안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6/20),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62000210048769ecba8d8b8_1&md=20210620002245_R

- ▶ 제안서에는 첫째, 새로운 결제 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법의 발전, 둘째, CBDC를 구축하면 통제와 면밀한 조사가 어려운 은행 시스템에서 분리된 암호화폐와 기타 결제 방법의 사용이 느려질 것이라 예상, 셋째,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가 금융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며 스마트폰의 보급이 사람들에게 금융상품을 직접 취득하도록 도울 것이며, 네 번째 동기는 건강 및 공공 비용의 이유로 현금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워킹 그룹 제안 취지로 언급함

□ 국 내

○ 한국은행, 금융권 대상 CBDC 연구 현황 관련 비대면 설명회 진행

- 파이낸셜뉴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은행·카드·보험·증권사 등 모든 금융업계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들에게 ‘CBDC 연구 현황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을 보내 14일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CBDC와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보도함 (2021. 6. 13.)

* 출처 : [단독] 베일 벗는 한은 'CBDC', 14일 금융권 대상 비대면 설명회 진행 (파이낸셜 뉴스 김성환 연지안 6/13), <https://www.fnnews.com/news/202106112100341155>

- ▶ 설명회 대상은 각 금융기관의 금융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 위원들이며, 한국은행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자체 구축한 원격회의시스템을 통해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함
- ▶ 한국은행이 비공개 설명회를 여는 이유는 이미 시중은행은 앞다퉀 CBDC 발행을 대비한 블록체인 망 구축 준비에 돌입하는 등 관련 업계가 CBDC 참여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임

○ 한국은행 하반기부터 CBDC 모의실험

-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CBDC의 처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실험에 착수함. 이를 통해 제조부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에 이르는 CBDC의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송금, 대금 결제 등 서비스 기능도 실험한다는 계획 (2021. 6. 21.)

* 출처 : 한은, 하반기부터 모의실험... 현금 없는 사회 찾아올까 [심충기획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대 성큼] (세계일보 김준영 6/2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20507805?OutUrl=naver>

- ▶ 앞서 한은은 지난 3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구축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함
- ▶ 이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CBDC 모의 시스템 구축과 가상환경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임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 국 외

○ 비트코인 4년 만에 업그레이드 공식 승인

-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세그윗(SegWit) 업데이트 이후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4년 만의 비트코인 업그레이드를 공식 승인하였으며, 이번 업그레이드는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임 (2021. 6. 21.)

* 출처 : 4년 만의 비트코인 업그레이드, 무엇이 바뀔까? (코인데스크코리아 김승주 6/21), <http://www.coindes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88>

▶ 이번 비트코인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슈노르(Schnorr)’ 전자서명과 ‘탭루트’의 도입으로, 전자의 경우 다중 전자서명(multi-signature) 기능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상 개별 거래에 대한 서명 값과 관련 키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의 익명성 강화에 유리하고, 후자의 경우 탭루트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스마트 계약 상에 표시된 여러 실행 조건들 중 필요한 조건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고, 스마트 계약 실행 시 모든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행 속도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

○ 엘살바도르

- CNBC는 8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제안으로 의회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기 위한 이른바 ‘비트코인법’에 대한 표결이 부쳐짐. 그 결과 84표 중 반대한 의원수는 19명, 기권 3명으로 찬성 62표를 받아 통과됐으며,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가 됨 (2021. 6. 9.)

* 출처 :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됐다...세계 최초 (파이낸셜뉴스 이설영 6/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54503?sid=105>

▶ 엘살바도르는 자국 화폐인 콜론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01년부터 미국 달러를 법정화폐로 채택했으며 이후 통화시스템은 안정됐으나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이 미국의 통화 · 금리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등 경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짐

- ▶ 앞으로 엘살바도르에서 물건 가격이 비트코인으로 함께 표기되며,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납부 가능함. 비트코인의 환전은 자본이득세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
- ▶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이 화폐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모든 사업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이며, 다만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함
- ▶ 비트코인을 달러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엘살바도르 개발은행 내에 비트코인 신탁을 만들 예정이며, 비트코인 신탁에 1억 5,000만 달러를 예치할 계획이라 밝힘
- ▶ 비트코인법 법안 통과 후 부켈레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한 이후 90일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됨

○ 미국

- 디센터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그레그 아버트(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암호화폐 산업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함 (2021. 6. 7.)

* 출처 : 美 텍사스 주, 암호화폐 보호 법안 서명 (디센터 양오늘 6/7), <https://decenter.kr/NewsView/22NJMPY6GU>

- ▶ 해당 법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상법을 적용시키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에 따라 개인과 기업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도 마련될 전망
-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인 401k와 관련한 자금 운용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 ‘포어스올’ (ForUsAll)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협력해 ‘대안(Alt) 401k’를 도입, 가입자는 연금 잔액의 최고 5%가량을 비트코인을 비롯한 50여 종의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음 (2021. 6. 12.)

* 출처 : 비트코인에 DC 연금 들어온다 (핀포인트뉴스 김예슬 6/12),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06121228445494cd1e7f0bdf_45

-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은행 서비스부는 10일 공지를 통해 은행들의 자체 표준 리스크 평가 시스템이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제공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밝히며 미국 텍사스주 정부가 주 등록은행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허용함 (2021. 6. 11.)

* 출처 : 텍사스 주, 현지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 허용 (뉴스핌 6/11), <https://www.ewspim.com/news/view/20210611000341>

o 우크라이나

-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가 내에서 확장되고 있는 암호 공간을 규제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하여” 라는 법률 초안의 최신 버전을 발표함. 개정안은 거래소가 정부 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공개하고 KYC(신원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2021. 6. 21.)

* 출처 : 우크라이나 의회, 암호 화폐 재산-비재산권 인정 ‘가상 자산 법률 개정’ 초안 상정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6/21),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6210001115029ecba8d8b8_1/article.html?md=20210621000342_R

- ▶ 러시아 암호화폐 미디어 포크로그(Forklog)의 보도에 따르면 동 법안의 초안은 가상자산을 가치가 있는 ‘무형재’ 로 인식하고 시민 유통의 대상이며, 가상자산은 다른 민권 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재산권 또는 비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고, 금융상품과 통화로 뒷받침되는 가상자산을 구별하고 있음
- ▶ 법안 초안의 핵심 규정 중 하나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려면 디지털혁신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소유구조를 밝히고 금융거래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허가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러시아 플랫폼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됨
- ▶ 의무적인 식별 및 검증 절차도 도입도 동 초안에서 중요한 측면임. 고객 신원 확인 절차 KYC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개인은 ID, 은행 계좌 및 전자 지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업들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유해야 함. 현재 고객 검증을 수행하지 않는 거래 플랫폼은 법 준수를 위해 탑승 절차를 업데이트해야 함

○ 포르투갈

-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포르투갈중앙은행인 banco 데 포르투갈(Banco de Portugal)이 공식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마인드 더 코인(Mind the Coin)과 크립토로자(Criptoloja) 2곳의 법인 등록을 허가함. 이는 올해 초 포르투갈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관련 법이 새롭게 시행된 후 영업 허가를 받은 최초의 사례이며, 크립토로자는 향후 2~3주 내에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2021. 6. 19.)

* 출처 : 포르투갈, 암호화폐 부동산 구입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허가 (농업경제신문 임지혜 6/19), https://cnews.thekpm.com/view.php?ud=202106190938306736124506bdf1_17

○ 탄자니아

-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사미아 술루후 하산(Samia Suluhu Hassan) 대통령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에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안 검토를 요청함 (2021. 6. 15.)

* 출처 : 탄자니아도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검토 (디센터 양오늘 6/15), <https://decenter.kr/NewsView/22NNABBHRA>

- ▶ 하산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탄자니아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지역은 이런 변화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

○ 튀니지

-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튀니지 경제장관 알리 쿨리(ali Kooli)는 곧 비트코인 구매를 범죄행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이는 최근 보고된 17세의 암호화폐 사용자가 체포된 이후 내려진 결정으로 쿨리 장관은 또 다른 튀니지 청소년이 투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비트코인 구매를 非범죄화하고 싶다고 밝힘 (2021. 6. 16.)

* 출처 : 튀니지 경제장관 “비트코인 구매 더 이상 범죄 아니다” 암호 화폐 합법화 예고편?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6/16),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61622531621999ecba8d8b8_1&md=20210616230105_R

o 인도

- 파이낸셜뉴스는 전년도 2억 달러에 불과했던 인도의 암호화폐 투자액이 인도 당국이 비트코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400억 달러(약 45조)를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 (2021. 6. 30.)

* 출처 : 인도서 금 대신 비트코인 열풍..45조 투자 (파이낸셜뉴스 강규민 6/30), <https://www.fnnews.com/news/202106301401578164>

- ▶ 기업가인 리치 수드는 금에서 암호화폐로 전환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그는 지난해 12월 이후 암호화폐에 100만 루피(약 1,524만원)를 투자했으며, 그가 금보다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이 금 시장보다 더 투명하고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 현재 인도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는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미국의 2,300만보다는 적지만 영국의 230만 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임

o 인도네시아

- 더구루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안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할 방침이며,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이 연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목표로 설립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보도 (2021. 6. 15.)

* 출처 : 인도네시아,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 연내 출범 (더구루 홍성환 6/15),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2361>

- ▶ 인도네시아는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인도네시아 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2015년 대비 2,263% 증가한 15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량은 44억 달러(약 4조 9,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고 암호화폐를 투자 상품 가운데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청(OJK)과 재무부, 무역부, 상품선물거래규제국 등 관련 부처들이 모여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마련 중임

□ 국 내

○ 금융위원회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힘. 금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는 지난 5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임 (2021. 6. 17.)

* 출처 : 금융위, ‘거래소코인, 자전거래 금지’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박근모 6/17), <http://www.coindes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46>

- ▶ 거래소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하지 못하게 함.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 또는 특수 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됨
- ▶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됨.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 이외에도 FIU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도록 규정함
- ▶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이 법인일 경우 대표자의 고객 확인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표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도 이뤄질 예정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간담회 실시

-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일 은행연합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등록 안내 컨설팅’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으며, 간담회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 모두가 참석했다고 밝힘 (2021. 6. 4.)

* 출처 :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 20곳과 무슨 이야기 나눴나 (매일경제 이지영 6/4), <http://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42286/>

▶ FIU는 이번 간담회에서 VASP 신고서 접수 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수의 거래소 관계자들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었고 금융위가 기존에 밝혔던 대로 조기 신고에 대한 니즈와 신고 관련 구체적 사항과 컨설팅 등을 재차 안내하는 자리였다고 밝힘

- 가상자산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10일 오후 서울 한국거래소 별관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20개사, 인증을 준비 중인 13개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30여 곳의 가상자산거래사업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당국은 이 자리에서 실사팀을 구성해 신청 거래소에 한해 7월 말까지 현장실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2021. 6. 10.)

* 출처 : 금융위, ISMS 인증 희망 코인 거래소도 현장 컨설팅 제공(종합) (뉴스원 서상혁 송화연 6/10), <https://www.news1.kr/articles/?4335728>

○ FIU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컨설팅 실시

- 뉴스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7월말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중 컨설팅을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힘 (2021. 6. 10.)

* 출처 : 금융위, ISMS 인증 희망 코인 거래소도 현장 컨설팅 제공(종합) (뉴스원 서상혁 송화연 6/10), <https://www.news1.kr/articles/?4335728>

▶ FIU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며, 특금법 상 신고를 할 사업자라면 준비를 미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TF 가동

- 이투데이는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내에 가상화폐 거래소 TF가 조직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함. TF 구성원은 7명이며 6월 14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했으며 TF는 약 한 달간 운영될 예정임 (2021. 6. 16.)

* 출처 : [단독] 금감원, 가상화폐거래소 감독 TF 가동...코인 구조조정 본격화 (이투데이 서지희 6/16),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6087>

○ 與, 가상자산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TF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열어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청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함 (2021. 6. 2.)

* 출처 : 與 가상자산 TF 첫회의 "청년 신음 커져 초당적 대응 불가피" (뉴스원 박주평 6/23), <https://www.news1.kr/articles/?4347859>

▶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 가상자산 TF 제1차 회의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빠르게 취합하고 통합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힘

▶ 이날 참석자는 박완주 정책위 의장과 유동수 TF 단장, 김병욱 TF 간사, 이상민·김영진·조승래·박재호·박주민·이용우·이정문·양경숙 의원이며, TF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과세 문제, 제도권 편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입법 처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

* 출처 : 與 가상자산TF, 오늘 첫 회의...투자자 보호책·과세 등 제도권 편입 논의 (뉴스핌 김현우 6/2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22001250>

4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디지털자산 동향

□ 국 외

○ 마이크로스트래티지

-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4억 달러(약 4,457억 원)에 이르는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2021. 6. 8.)

* 출처 : ‘비트코인 최다보유’美기업, 회사채까지 발행해 추가매수 (동아닷컴 이은택 6/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08/107331111/1>

-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의 추가 매수를 위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10억 달러(약 1조 1,180억원) 유상 증자 계획을 보고함 (2021. 6. 15.)

* 출처 :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위해 1조 유상증자 (파이낸셜뉴스 정영일 6/15),

<https://www.fnnews.com/news/202106151256442214>

- ▶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스닥 상장기업이며, 약 38억 달러(4조 2,480억원 규모)에 달하는 9만 2,079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최근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며 2028년 만기의 5억 달러(약 5,589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바 있으며, 비트코인 매입용 회사채 공모에는 16억 달러가 몰려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간접 투자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입증
- ▶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2억 8,500만 달러(약 3,18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비트코인에 더 많이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골드만삭스

-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최대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자체 운영 중인 전용 트레이딩 데스크를 통해 이더리움 선물과 옵션 매매까지 가상자산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2021. 6. 15.)

* 출처 :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투자 확대"...이더리움 선물·옵션에 참여 (이데일리 이정훈 6/1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79606629082048&mediaCodeNo=257&OutLnkChk=Y>

▶ 골드만삭스에서 디지털 자산 부문을 이끌고 있는 매튜 맥더모트 대표는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도입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수개월 내에 자체 가상자산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이더리움 선물과 옵션도 새롭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그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채권(ETN)도 추가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함

○ 소프트뱅크

-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브라질 최대 가상자산 메르카도 비트코인(Mercado Bitcoin)에 2억 달러(약 2,266억원)를 투자함 (2021. 7. 2.)

* 출처 : [글로벌포스트] 소프트뱅크, 브라질 가상자산 거래소에 2천억 투자 (파이낸셜뉴스 이구순 7/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67663?sid=105>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르카르도 비트코인의 모회사 2TM 그룹의 CEO이자 회장인 로베르토 다그노니(Roberto Dagnoni)는 “메카르도 비트코인은 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한 시리즈B 투자금을 활용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서비스 지역 확장과 현재 500여명인 직원을 연내 70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 임을 공식 발표함

○ 앤드리슨 호로비츠

- CNBC 방송 등 보도에 따르면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비츠가 24일(현지시간)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22억 달러(2조 4,9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출시함 (2021. 6. 25.)

* 출처 : 가상화폐 출렁여도 업계에 베팅...미국서 2조5천억원 펀드 출시 (연합뉴스 정윤섭 6/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483136?sid=104>

▶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대 주주인 앤드리슨 호로비츠는 “이 펀드의 투자 규모는 우리 앞에 놓인 기회의 크기를 말해준다” 며 “가상화폐는 금융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모든 측면에서 변화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고 밝힘

○ 아크인베스트

- 이투데이에 따르면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신청함. 그동안 아크인베스트는 자사에서 운영 중인 ETF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들이거나 GBTC 펀드 지분을 매수하는 등 간접 투자 방식을 취해왔으나 이번에는 직접 ETF 상장에 나서는 것이 차이점임 (2021. 6. 29.)

* 출처 :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뚝심...이번엔 비트코인ETF 상장 신청 (이투데이 김나은 6/29),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9841>

- ▶ 아크인베스트는 SEC에 제출한 신청 서류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어떤 특정 회사나 정부 또는 자산과도 관련이 없다면서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시장 가치는 미래에 대한 기대, 비트코인 거래 건수,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종합적인 비트코인 사용에 달려있다고 설명

○ 더 B 워드(The B word)

- CNBC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잭 도시 트위터 CEO가 7월 21일 개최 예정인 비트코인 콘퍼런스 ‘더 B 워드(The B word)’에서 비트코인을 주제로 토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2021. 6. 28.)

* 출처 : 일론 머스크 vs 잭 도시...비트코인 맞장 토론, 코인 흥행 되살릴까? (매경이코노미 문지민 6/28), <https://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1&no=623931>

- ▶ 그동안 두 사람은 비트코인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인 만큼 치열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며, 암호화폐 매체 더블록은 “도시가 비트코인 전도사라면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해 훨씬 더 비판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토론은 흥미로울 것” 이라고 전망

□ 국 내

○ 정부 기관 가상자산 투자 현황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1. 5. 4.)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들이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1. 6. 1.)

* 출처 : [뉴스락 특별기획] 정부 기관의 '가상화폐 투자',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뉴스락 권현원 6/1), <http://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50>

▶ 정부기관 가상자산 투자 현황

| 기관명 | 금액 |
|---------|--------------|
| 중소벤처기업부 | 343억원 |
| 산업은행 | 117억 7,000만원 |
| 국민연금공단 | 34억 6,600만원 |
| 우정사업본부 | 4억 9,000만원 |
| 중소기업은행 | 1억 8,900만원 |

- ▶ 이들 기관은 대부분 직접 투자가 아닌 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 형태였으며, 정부 공공기관이 모태출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면 모태출자펀드가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어 이를 벤처캐피탈 회사가 운용하는 구조로 이뤄짐
- ▶ 국민의힘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하여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닌 도박이라는 정부의 인식은 사회에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수많은 피해자만 양산시켰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미래 시각을 예측하고 이를 대비해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며, 이미 수십 조로 커져버린 시장에 기 참여한 국민들을 어찌 보호해야 할 것인지 전략적인 방안 등을 즉시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지적함

o 신한은행

- 더벨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 최초로 그라운드X 가상자산 생태계 ‘클레이튼(klaytn)’을 운영하는 ‘거버넌스 카운슬(Governance Council)’에 합류함 (2021. 6. 30.)

* 출처 : 신한은행, 클레이튼 운영 공동체 합류...금융권 인식 바뀌나 (더벨뉴스 최필우 6/30), <https://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2106291607132320105525>

- ▶ 30여 개 국내외 기업으로 이뤄진 거버넌스 카운슬은 각 회사에 1개씩의 투표권을 부여하며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각 회사는 클레이튼을 공동으로 운영함

○ 국민은행

-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지난 4월 20일 ‘DiXiT’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함 (2021. 6. 22.)

* 출처 : KB국민은행 또 가상자산 상표 출원...‘DiXiT’ 어디에 쓰일까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6/22),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789>

- ▶ KB국민은행이 특허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iXiT’는 △ 가상통화 관련 통화거래업 △ 가상통화 관련 금융 정보제공업 △ 디지털 자산과 원화정산업 △ 디지털 금융 자산의 위수탁, 운용, 관리업 △ 디지털 자산의 금융거래업 △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 관련 정보제공업 등에 활용되며,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전반을 포함함